

■ 특집 / 중국 약초 재배지를 가다 ①

중국 최대의 약재집산지, 박주

밭 단는곳마다 작약이 지천, 전체 생산량의 70% 수출



◇ 지난 95년에 개장한 박주 약재시장은 연건평 약10만평에 달하는 중국 최대규모의 약재시장이다.



◇ 작약 가공작업이 한창인 초동진의 거의 모든 도로들은 양건중인 작약들로 작약길에 뒀다.

박주 약용식물연구소
북경역에서 오후 7시30분 합비행 기차를 탔다. 중국에서는 최고급 기차라는 4인용 객실 기차. 석양으로 붉게 물든 창문 너머로 광활하게 펼쳐진 중국 대륙이 낮선 기차 풍경과 어우러져 영화 속 한 배경 안에 앉아있는 듯 묘한 감흥을 불러일으킨다. 다소 불편하고 생경하지만 이런 낮선 느낌이 또 여행을 통해서만 느낄 수 있는 묘미가 아닐까.

밤새 9시간을 넘게 달려 새벽 5시경에야 안휘성의 수도인 합비에 도착했다. 새벽녘부터 기차를 타려고 기다리는 사람들과 막 기차에서 내린 사람들로 발 디딜 틈 없는 역 안은 땀냄새에 중국사람들 특유의 몸 냄새까지 섞여 마치 50년대 우리나라 피난민 행렬 같다.

목적지인 합비역에서 1시간 가량을 더 달려 도착한 곳. 중국 최고의 의성(醫聖)으로 추앙받는 화타, 조조의 고향으로 유명한 박주는 중국 남방 최대의 약재시장으로 안휘성 서북단에 위치하고 있다. 박주가 중국 양대 약재유통의 중심지가 된 것은 신의(神醫) 화타를 기념하기 위해서였다고 한다.

박주시 약용식물원을 찾아가는 길. 새벽 어스름 속에서 자전거를 타고 어디론가 향하는 사람들의 행렬이 간혹 눈에 띈다. 경운기 뒤에 온가족이 함께 타고 밭으로, 약재를 가득 싣고 장으로 향하는지 새벽녘부터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에게서 싱그러움 새벽 공기보다 더 풋풋한 삶의 향취가 느껴진다.

박주시 약용식물원은 북경 약용식물연구소의 분소이다. 열대, 아열대 약용식물(전통적으로 수입하는 남방약과 민족약을 포함) 종의 보호와 재배기술 및 이용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현재 2천무(40만평) 규모의 식물원에 약2백여 종의 약재가 재배되고 있으며 농가 주 재배품목인 20여종에 대해서는 종자개량을 통한 우량종자의 보급과 수매 및 국내외 유통업무를 맡고 있다. 깔끔하게 잘 정돈된 식물원 안에는 약재별 이름과 효능 이용부위

에 대한 설명이 붙은 표지판이 각각 세워져 있어 알아보기가 쉽다. 화타가 가장 먼저 마취제로 사용했다는 만타라(曼陀羅)라는 식물도 눈에 띈다. 지금의 추앙받는 화타를 있게한 장본인인 셈이다.

비록 내용을 다 파악하기는 힘들지만 성심을 다해 뭔가를 열심히 설명해주는 약용식물연구소 정군(丁軍)(42세) 주임의 마음씨가 좋은 느낌으로 와 닿는다.

박주시 우수중약재 규범화 시범기지

약용식물원 앞에는 박주시 우수 중약재규범화 시범기지가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있다.

박주시 우수 중약재 규범화 시범기지는 약 10만무 규모로 박주 중화약도투자유한공사와 중국의학과학원 약용식물연구소와 공동 투자 개발한 중약재 고급 과학기술 시범단지다.

단지 내에는 중약재 조직배양, 종묘실험, 기술보급, 우량 품종번식, 양질의 중약재 규범화 종식시범기지가 있으며 품종육성에서부터 재배기술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연구를 수행하는 곳이다. 특히 화학비료와 농약의 남용으로 인한 농약잔류문제와 중금속 함량 초과 문제, 재배 중 품종의 혼란과 퇴화문제 해결방안에 관해 중점 연구를 수행중이라고 한다. 또한 재배기술과 병충해 방제법, 수량증대방안, 안정적이며 지속 가능한 농업의 개발연구를 수행중이다.

정군 주임은 "지금까지의 중약재 전통적인 생산방식에서 탈피, 고품질 우량약초의 생산기술을 연구 보급함으로써 박주 지방경제발전과 농가

소득증대는 물론이고 중약재의 과학화, 현대화를 통해 국제시장에서의 중약재 경쟁력을 높이는게 이곳 시범기지사업의 목표"라고 설명한다.

약초재배단지, 초동진

인구 530만의 박주시에는 약 32만무(6,400만평) 면적에 약초가 재배되고 있으며 약초재배 주산지답게 이곳 농민들 수입원의 90%는 약초재배를 통해 얻어지고 있다. 이곳에서 생산되는 재배 품종만도 298종에 이르며 작약을 비롯 백지, 지모, 목단, 백출, 길경 등 20여종이 주 재배품목이다.

중국 최대의 약재시장이 있는 도시답게 생산과 가공 및 유통에 이르기 까지 일관된 시스템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

도 특징이다.

농가에서 재배하는 작약, 백지 등의 약재는 대부분 정부에서 수매하는데, 수매가격은 작약이 kg에 3원90전(624원), 백지가 3원50전(560원), 목단은 6원(960원) 정도라고. 수매한 약재는 유한공사에서 산동성의 전문 수출회사를 통해 수출하고 있으며, 이렇게 수출되는 약재 물량은 연간 박주시 전체 생산량의 70%, 금액으로는 수천만위엔(인민폐)에 달한다. 약용작물이 이곳 농가의 주요 소득원인 점을 감안해 시에서도 수출확대를 위해 주력하고 있다.

박주에서 나는 도지약재로는 '박작약', '박국화', '박천화분', '박상피', 등이 유명하며 약재 앞에 '박'자를 붙여 해외로 수출되는데 주요 수출국은 우리나라와 일본이며 홍콩이나 대만, 미국, 독일, 프랑스로도 수출된단다.

박주 약초재배단지 초동진으로 가는 길. 때마침 작약 수확작업이 한창인 초동진의 거의 모든 도로는 양건 중인 작약들로 작약길이 뒀다. 길 옆으로 기계를 세워놓고

작약 가공작업을 하는 풍경도 자주 눈에 띈다. 세척기 안에서 시커먼 자갈돌을 넣고 양수기로 연결된 긴 호스로 물을 공급하며 거피 및 세척작업을 진행중이다. 중국에서는 이처럼 기계를 가지고 이동하면서 가공작업을 한다고.

박주는 중국에서도 최대 약재시장으로 손꼽히는데 작약의 경우 재배면적만 1만무(200만평)에 이를 만큼 대규모 재배단지이다.

정군 주임의 안내로 송진인(58세)씨라는 작약재배 농가를 방문했다. 박주에서도 이곳 초동진은 특히 가는 곳마다 작약밭이고 작약 못지 않게 많은 게 옥수수다. 특이할 만 한 사항은 작약을 옥수수 사이로 심고 있는 것.

점심으로 먹고 있던 주식인 듯 삶은 밀가루 빵이며 옥수수를 스스럼없이 권하기도 하고 필요한 종자도 아낌없이 내주는 사람들. 아직 때문지 않은 원시림이 느껴지는 그들이지만 우리 생약 생산 농가에게는 다소 버거운 경쟁상대라는 생각에 마음이 무겁다.

(문정희)

박주 중화약도 투자유한공사

박주 투자유한공사는 1994년에 설립됐다. 200여명의 직공이 있으며 그 중 32명의 과학기술요원, 18명의 관리인원이 일하고 있다. 유한공사의 현재 자본금은 1.8억위엔(인민폐) 정도이며 연 매출액은 약 2천만 위엔이다.

공사의 주요 업무는 약재수출 외에도 △중약재 종묘(종자)의 과학적 배양, △중약, 생물약, 보건의약 등의 연구과 개발을 위해 정부 연구기관과 대학이나 공동으로 연구 수행, △중약재 시장의 개발과 중약재에 관련한 고급과학기술의 개발 △중성약(중약을 양약처럼 만든 것), 생물약, 보건의약의 생산과 경영에 참여 등이

다. 현대화된 중약연구개발, 생산 판매의 전문회사인 셈이다. 또 과학기술부와 공동으로 '양질의 중약재 규범화 식물 항목' 설정을 위한 연구에 참여하기도 했다.

박주약재시장

박주 중약재 교역센터는 지난 94년 착공, 1995년에 문을 열었으며 연건평 약 10만평에 달하는 중국 최대 규모의 약재시장이다.

1995년 문을 연 이곳 박주 약재시장에는 6천여개의 좌판과 1천개소의 점포가 입주해 있다. 북방약재들이 주류를 이루는 인국약재시장과는 달리 이곳 박주시장은 남방 약재들이 주로 모여 거래되고 있다는게 특징. 3,000여

종의 약재가 하루 300~400만톤 가까이 거래되고 있으며 1일 유통연구 만도 6만여명에 달한다. 약재상들은 같은 품목이라도 약재 이름 앞에 "川"(사천약재), "廣"(광동약재), "雲"(운남 약재), "貴"(귀주약재), "浙"(절강 약재) 등을 써 붙인 깃발을 세워놓고 산지별 다양한 종류의 약초를 판매하고 있다.

박주는 약재생산, 유통이 모두 활발하여 시내 6개소에 약재시장이 있고, 경동 약령시장처럼 약재 전문상가가 형성된 거리도 4개나 된다. 이곳 박주약재시장은 경환철도와 105번 국도, 311번국도가 지나가는 교통요지에 건립되어 중국약재 거래에 있어서 빼놓을수 없는 중요한 시장으로 부상하게 되었다.